## 데스크 시각

# 홍어

박 성 천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

누구에게나 '소울 푸드'가 있을 것이다. '영혼의 맛'이라는 뜻의 소울 푸드는 대개 어머니의 손맛과 연관돼 있다. 어떤 이는 고향의 정이 담긴 원초적인 맛을 소울 푸드라고 말하기도 한다. 인간은 젖을 떼면서부터 어머니가 만들어 준 음식을 접하고 점차 길들여진다. 어른이 된 후에도 어렸을 때 먹었던 어머니의 음식을 찾게 되고 그리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 번쯤 누군가로부터 '당신의 소울 푸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위로해줄 소울 푸드를 만난다면 그 자체로 행복한 일이다.

### 삶에 대한 통찰 담긴 100여 편의 시

사전적 의미의 소울 푸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전통 음식'을 말한다. 백인들의 감시와 냉대를 참으며 위험한 일과 허드렛일을 해야 했던 흑인들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먹었던 음식이다. 그들에게 소울 푸드는 고통과 슬픔을 잊게 하는 원초적인 맛이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일 것이다.

얼마 전 '홍어'를 소재로 한 시집 한 권을 받았다. 모두 100여 편의 작품이 모두 '홍어'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 흥미롭고 이색적이었다. 종합적인 홍어 인문서라 해도 무방할 만큼 시집은 홍어를 매개로 삶에 대한 번뜩이는 통찰을 담고 있다. 저자는 문순태 소설가.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바깥 출입을 자제했던 그는 틈틈이 시를 썼다. '징소리' '철쭉제' '백제의 미소' '타오르는 강'과 같은 소설로 한의 미학에 천착했던 작가는 이번 시집에서도 전라도 정서와 맛깔스러운 언어로 '홍어 시(詩)'를 펼쳐 보인다.

문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홍어다. 그를 취재하기 위해 만나거나 이런저런 일로 담양 생오지(작가의 생가)에 들을 때면 곧잘 홍어 이야기를 듣곤 했다. "홍어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전라도의 정체성이 깃든 음식"이라는 것이 그의 홍어에 대한 단상이다. 그의 설명을 부연하자면 이렇다.

"음식에 정과 혼이 담기는 것은 꽃이 빛깔과 향기를 품는 것과 같다. 맛의 깊이는 혀끝이 아닌 마음이 먼저 알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홍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와 정서가 깃들어 있는 정신적 가치가 되었다. 남도의 대표적 전통 음식의 하나인 홍어는 백성의 물고기이자 민초들의 고통과 눈물이 오롯이 배어 있는 정신적 가치이기도 하다."

문 작가가 처음 홍어를 맛본 것은 소년 때였다. "할머니 저승 가신 날 코 불며 먹었던 홍어, 희한한 맛에 놀라 눈물과 함께 꿀꺽 삼켰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 졸업식 날 홍어를 안주 삼아 실신할 정도로 막걸리를 마셨던 기억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그의 홍어 사랑은 영산포 과수원집 외동딸인 아내를 만나면서 깊어졌다. 스물세 살 때 아내를 만나 영산강 둑길을 거닐던 추억 저편에는 홍어 집산지 영산포의 풍경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인생의 통과 의례와 같은 지점마다 홍어는 그에게 늘 위안과 고향의 맛을 환기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애호가답게 홍어의 맛을 '1 코' '2 애' '3 날개' 순으로 소개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홍어 삼합을 비롯해 무침, 튀김, 탕, 전, 애국 등 홍어를 주재료로 한 음식에 대한 상찬도 읽는 맛을 더한다.

### 삭힘의 미학 그리고 소울 푸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전라도를 폄하하는 수단으로 '홍어'를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문적 소양 결여 내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 무엇보다 공감 능력의 상실에서 비롯된 혐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 작가는 "전라도 사람들이 삭힌 홍어를 사랑하는 이유는 발효의 고통을 오롯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며 "짓밟힐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썩힐수록 제 맛을 뿜어내는 발효는 오랜 시간 암흑 속에서 고통과 서러움의 내적 변화 과정을 통해 거듭남을 뜻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의 말은 홍어의 생태적 습성과도 일정 부분 연계된다. 즉 부레가 없는 탓에 떠 있지 못하고 바닥에 배를 깔고 사는 홍어는 낮은 땅에 엎드려 한을 품고 살아왔던 전라도 사람들과 닮았다는 것이다. 고통을 통해 숙성될수록 더 깊고 따뜻하고 웅숭깊은 인간애를 느끼게 되는 이치와도 맞물린다.

언급한 대로 누구에게나 소울 푸드는 있기 마련이다. 지치고 힘들 때 고향과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것은 존재와 존재를 잇는, 세계와 세계를 잇는 원초적인 맛일 게다. 노(老) 작가가 삭힘으로 대변되는 홍어를 좋아하는 것은 톡 쏘는 향도 향이지만, 아마도 그리움으로 축적된 기억을 되살려 주기 때문이 아닐까.

## 은펜칼럼

# 접시꽃을 마주하며

김 창 균
빛고을고등학교 교장

초여름에 들어서니 접시꽃이 한창이다. 별다른 보살핌 없이도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이듬해 꽃을 피우는 일을 오랜 세월 이어와서인지, 아니면 붉은색, 하얀색, 분홍색 꽃의 수려함에 서린 수수함 때문인지 도심에서 마주해도 야생의 실박함이 물씬 풍긴다.

접시꽃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재배가 무난하여 원산지인 중국 남서부 지역을 떠나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건너갔다. 유럽 사람들은 접시꽃을 민가 울타리 안팎에서 주로 접했던 모양이다. 영국의 화가 찰스 헌트(Charles Hunt, 1803~1877)가 그린 풍경에 강아지를 놀리려고 길섶의 나무울과 나란히 한 접시꽃 뒤에 숨은 아이들이 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에 촉규화(蜀葵花: 촉나라 아욱꽃)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 토양을 가리지 않고 햇빛을 좋아하지만 약간의 그늘도 수락하는 무난한 생육 조건 탓인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 왕실과 귀족에게 사랑받은 국화와 달리 인가 주변에 자리 잡았다.

신라 말에 고운(孤雲) 최치원이 쓴 시를 보면 그 당시의 접시꽃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선생은 밭둑에 탐스럽게 피었지만 벌, 나비 외에는 찾는 이가 없는 촉규화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여, 알아주는 이 없고 세상에 쓰이지 못하던 당나라 유학 시절을 "천한 땅에 태어난 것 스스로 부끄러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네"라고 노래하였다.

어느덧 국내 체류 외국인 230만 명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 결혼이민자 자녀, 귀화자 등을 포함하면 이민 배경 인구는 300만 명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한편 글로벌화된 세계는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반면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서 차별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요즘 유튜브 영상 중 '니하오 대처법'이 아닌가 한다. 유럽인들이 한국인에게 '니하오'를 외치는 모습을 접한 경험담이 올라오고, 여기서 눈을 찢는 동작 같은 비언어적 차별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보니 많게는 수백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영상도 있다.

물론 '니하오'도 '하이(Hi)'처럼 인사말이고, 아시아인은 중국인이 대부분이라 현지인들이 아는 중국어로 인사하는 것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KBS 취재진이 독일 사회통합이주연구센터(DeZIM)에 문의한 결과, 답변은 '인종 차별로 볼 수 있다'였다. 노상에서 뜬금없이 '니하오'를 외치는 것은 상대가 표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의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즉 상대편이 자신과 다른 사람임을 말로 보여 주는 '먼지 차별'(Microaggression: 크게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미묘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엊그제 호남지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다문화 아동 인구 비율은 전남 6.8%, 전북 5.7%, 광주 3.3%였다. 전남과 전북은 전국 1, 2위를 기록하였다. 귀화자든 외국인 신분이든 이민자 가정이든 차별 없는 사회·경제·문화적 권리가 필요한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월트 휘트먼의 시 '배를 타고 항해했으면'(O to Sail in a Ship!)의 내용처럼 고운 선생은 육지를 떠나 바다를 달리고 싶었고, 당나라에서 접시꽃 처지를 이겨냈다. 그런데 돌아온 고국은 혈통에 따라 신분을 가르는 골품제의 폐단 속에 여전히 갇혀 있었다. 지금 우리 주변은 어떠할까.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부터 전쟁의 아픔을 안고 온 이들까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들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까.

뻐꾸기 울음소리와 더불어 시작한 접시꽃은 장맛비에 젖어가면서도, 땡볕 아래에서도 환하게 꽃을 피우며 어른 키만큼 자라날 것이다. 고운 선생의 접시꽃은 황량한 밭둑에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가장 아름답게 여름을 함께해 주는 꽃이 되었다. 그래서 접시꽃을 덕두화(德頭花)라 부르듯이, 우리도 형형의 색상이 품고 있는 덕(德)을 알아 나눔과 베풂으로 승화해야 한다. '니하오'를 외치는 서구에 대응하는 마음이 정작 안에서는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하는 구태의연한 편견과 차별에 갇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 기 고

# 감정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이겨 내는 방법

김 재 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관리팀장

우스갯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개국 이래 '비상시국'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공무원들이 업무적 동기 부여를 위해 상황 인식을 긴박하게 설정하고자 항상 비상을 강조해서 생긴 말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국민은 정말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진짜 비상시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도 서슴지 않는 국제 정세,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빈곤의 극대화, 사회적 갈등, 코로나 이후 가치의 혼돈과 고립감, 아침마다 뉴스로 접하는 사건 사고들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 오죽하면 혹자는 경제학 개념인 인플레이션에 인문학적 개념을 더해 '감정의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말로 삶의 팍팍함을 표현했을까.

인플레이션이란 1517년에 프랑스 경제학자 장 보댕이 처음 사용한 경제학 용어다. 통화의 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상승한다는 뜻이다. 내가 가진 재화의 가치가 하락해 동일한 만족, 행복을 가지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가진 감정의 가치마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니 우울해진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행복 처방이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는 것이다. 오롯이 혼자 우울감을 해결하는 것보다 행복해지는 환경에 나를 가져다 놓는 것이다. 행복한 인풋(input)을 위해서는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면 된다. 간단하게는 독서나 산책 같은 것도 있겠지만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전라남도 인재개발원과 같은 기관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은 1953년 광주 양림동에서 전남공무원훈련소라는 이름으로 개소한 이래 농성동, 1979년 매곡동 이전을 거쳐 지금의 강진군 도암면으로 옮겨왔다. 조선 후기 신유박해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경세유표, 흠흠심서 등 500여 권의 저서를 집필하고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의 다산초당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즈넉한 강진만을 품고 있다.

2021년 4월 이곳으로 이전한 후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해 행복한 전남을 만들고자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해만 해도 온라인을 포함 161개의 과정을 개설해 4만 146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공무원 외 일반 도민도 함께하는 참여형 열린 교육도 5개 과정 14기를 운영하고 있다.

인재개발원 내 갤러리와 정원 등의 시설들을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해 문화와 힐링이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육생들을 위한 주차장 추가 확보, 정원 시설 및 운동장 등 휴게 공간 보강으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다. 도서관에는 3만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어 지식의 향연도 가능하다. 이뿐이랴. 교육생의 식도락을 위해 식당의 메뉴도 다양화하고 맛도 개선했다. 강진군의 통 큰 지원으로 천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런 노력으로 최근 들어 교육 수료자의 만족도는 계속 향상되고 있다.

휴식 시간 잠깐 짬을 내 다산초당에서 동백나무가 가득한 천년고찰 백련사까지 걷는 숲길은 시원하다. 가까이에 있는 가우도의 출렁다리와 바다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천혜의 트레킹 코스도 있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마량을 거쳐 완도 고금까지 해안길 드라이브는 근심을 날려 버리기에 충분하다.

최근 유명한 인지심리학자가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고 말했다. 가만히 있어도 자신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대,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싶은 사람은 이곳으로 오라. 소소하지만 강진만 자락에서 좋은 사람과 좋은 풍경, 풍미를 즐기며 감정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이겨내자.

## 社 說

# 세균 넘치는 지하철 좌석 위생 관리 철저히

지난 2004년 4월 개통된 광주 지하철 1호선은 광주 시민들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접어들며 지하철 이용객 수도 코로나 발생 전인 월 4만 명대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또한 1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광주일보 취재진이 사물 표면의 유기물을 측정해 오염도를 확인하는 ATP기를 이용해 광주 지하철 1호선 차량 다섯 대의 객실 좌석 세균과 곰팡이균 수치를 측정한 결과 각각 1070, 498, 410, 313, 285로 나타났다. 이는 ATP기 제조사 측이 규정한 안전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1103호차 좌석에서 측정한 수치(1070)는 문화전당역 지하철 여자화장실 변기(679)와 하루 최대 100명이 방문하는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문 손잡이(339) 보다 월등히 높았다. 같은 대중교통인 택시(91), 시내버스(232)에서 측정한 수치와도 대조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개통 이후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예산 문제로 좌석 시트를 전면 교체하지 않고 노후·훼손된 경우 일부만 교체해 왔다. 공사 측은대신 연 2회 물 청소와 월 1회 스팀 청소, 주 1회 소독을 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측정 결과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위생과 방역에 민감해진 시민들의 불만과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누가 세균과 곰팡이균이 득실거리는 느낌을 받는 지하철 좌석에 편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지하철은 승객들의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세균을 이곳저곳으로 옮기기 쉽다. 따라서 청결한 환경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만큼 공사 측은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오염에 취약한 섬유 소재의 노후 객실 좌석 시트를 금속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다시 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강화를

올 들어 광주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를 계기로 대면 수업이 재개된 영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광주 지역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접수된 폭력 건수는 930건으로 전년보다 31%(221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접수된 학교폭력 건수는 2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131건)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까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도 2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110건) 증가했다.

학교폭력이 다시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피해 학생은 물론 담당 교사의 고충도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 증가가 예상됐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 학기인 3월에 이미 학교 폭력 건수가 배 이상 늘었는데도 사실상 수수방관해 온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그제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가 법·제도 개선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 기관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급증하는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시켰다.

학교폭력은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피해 학생에 대한 온전한 회복 지원과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시교육청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교육'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대책 보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 고양이 외교

중화권에선 정치와 외교 전략을 동물에 비유해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조격은 덩샤오핑 중국 국가주석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다. 검정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의미로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실리를 추구하자며 내세운 구호다.

외교 정책에선 '전랑(戰狼) 외교'란 용어가 등장한다. 2015년과 2017년 개봉한 애국주의 영화 '특수부대 전랑(戰狼·늑대 전사)'에서 유래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가 미군을 물리친다는 내용으로 중국판 람보 시리즈다. 늑대 같은 전사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한다는 의미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때를 기다리며 능력을 키운다) 노선을 폐기하고 중국몽을 기치로 내걸면서 중국의 외교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전랑 외교는 지난해 10월 시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노골화되고 있다. 그해 12월 대표적인 늑대 전사 친강이 외교부장에 임명되면서 외교관들의 입이 거칠어 지고 있다. 친강은 지난 4월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불장난하면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고 협박했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며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중국이 패배할 것에 베팅하지 말라'는 취지의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전랑 외교에 '전묘(戰猫) 외교'로 맞서고 있다. 민주주의·인권 존중의 가치를 앞세워 국제 사회의 우군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2020년 7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대표부 대표를 임명하면서 "유연한 고양이 전사의 자질이 있다"고 소개한 데서 유래했다. 샤오메이친은 "대만 외교는 팽팽한 밧줄 위를 경쾌하고 유연하게, 균형 있게 걷는 고양이와 같다"고 규정했다. 비굴하지 않으면서 교양 있는 언행, 부드러우면서 굳건한 자신감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국제 외교가에선 전묘 외교가 전랑 외교를 눌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신냉전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